

Kstat Report

사회지표 || 2023년 1월 19일

케이스탯 2023년 1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9%, 소폭 상승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9%, 4%p 하락
- _ 정부 신뢰도 : '신뢰' 33%, 5%p 상승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8%, 4%p 상승
- _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31%, 4%p 상승
- _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6%, 4%p 상승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22%, 소폭 상승
- _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45%, 12%p 상승
- _ 자기 삶 평가 : '고군분투' 68%, '고통' 22%, '번창' 10%

■ 1월 특별지표 : '자유'에 대한 태도

- _ '시장자유 절대 보장' 55% vs '공익위해 제한 가능' 45%
- _ '개인자유 절대 보장' 60% vs '공익위해 제한 가능' 4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1월 6일(금) ~ 1월 8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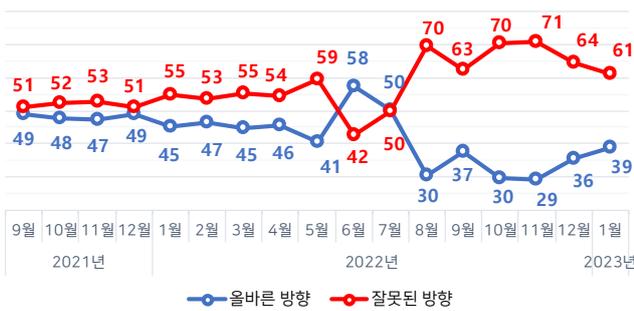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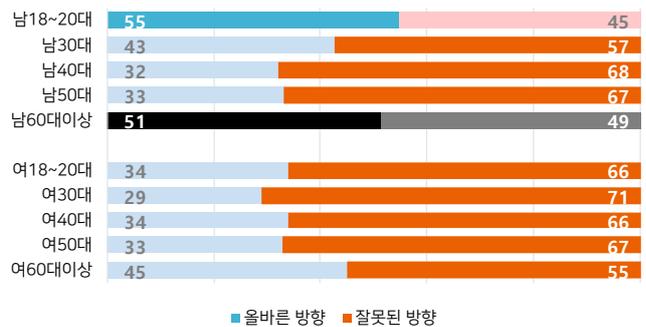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9%, 소폭 상승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 응답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39%를 기록함
 - 2023년 1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9% vs '잘못된 방향' 61%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4050세대 △여자 2050세대 △충청, 호남 △진보층 등에서 높았음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이상 △TK △보수층 등임
 - 남자 60대 이상은 긍정·부정 응답이 팽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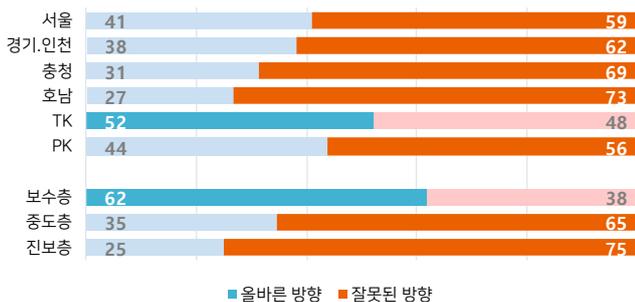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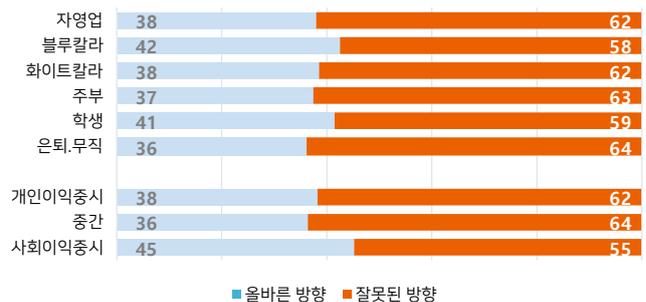
2023년 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성/연령별(단위:%)



2023년 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직업별,이익증시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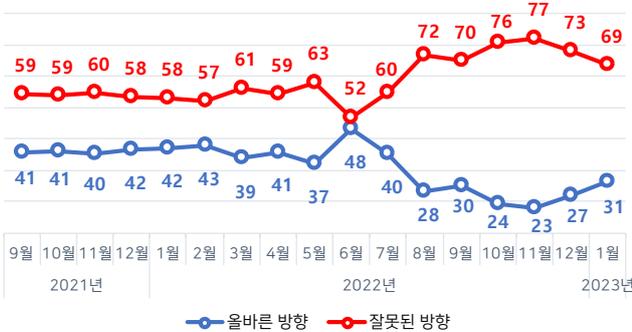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29%)를 기록한 작년 11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함
 - : 전월 대비 긍정평가가 계층 대부분에서 상승했던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거의 전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증가함 (충청, 중도층, 자영업자 제외)
 - : TK, 보수층의 여론이 가장 크게(각 +11%p) 개선됐는데, 이들은 지난 7월 이후 6개월 만에 긍정평가 우위층이 됨
- ☑ 최근 발표된 정부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국정 운용 기조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으로 대표 되는 국가 청사진 등 대한민국의 방향성 및 비전이 제시된 점이 긍정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이후 국민 여론의 향방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과정 및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경기침체 우려가 가속화하고 있어 대한민국 방향성에 관한 부정평가 우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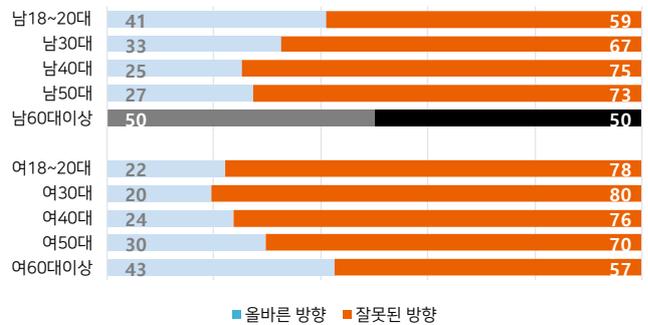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9%, 4%p 하락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6개월 만에 70%를 밑도는 결과를 보임
 - 1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1%, '잘못된 방향' 69%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2040세대 △충청, 호남 △진보층 등임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뿐인 가운데, △남자 18~20대 △여자 60대 이상 △서울, TK △학생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았음
 - △남자 60대 이상은 긍정·부정 응답이 반으로 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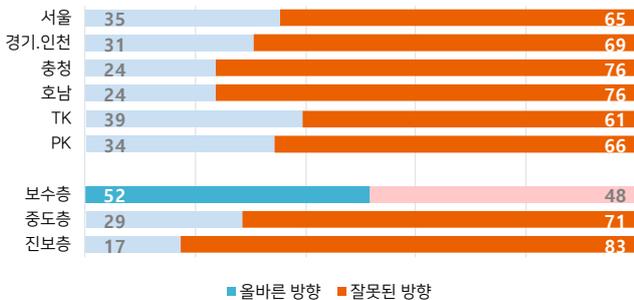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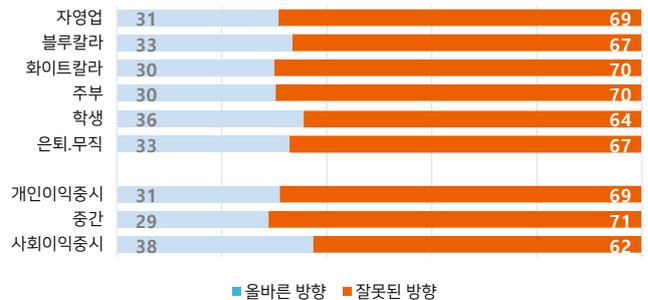
2023년 1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3년 1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2023년 1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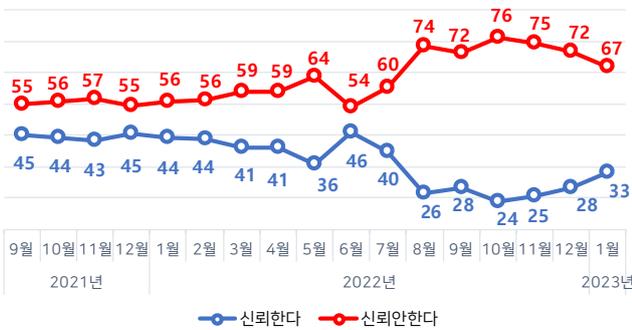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여론이 여전히 70%에 가까운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큼
- ☑ 전 세계 경제의 긴축 국면 속 경기침체 본격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판단됨
 - :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 11월 전망했던 1.7%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 '새해 국가 경제 전망' 관련 여론조사 결과, '나빠질 것'(49%), '2022년과 비슷할 것'(41%), '좋아질 것'(9%) 순으로 조사됐는데, 전년도 대비 경기 낙관론은 대폭 감소(-16%p), 비관론은 대폭 증가(+21%p)함 (자료: 한국갤럽)
- ☑ 올해는 물가 부담, 고용 불안정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 : 국민들은 대통령이 새해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로 '경제회복/활성화'(35%)를 꼽음 (자료: 한국갤럽)
 - : 국민들은 경제 분야 중 '물가 하락'(47%)을 가장 바랐으며, 다음으로 '고용안정·일자리 증가'(46%), '경제성장'(43%) 등 순으로 나타남 (자료: 케이스탯리서치 66호 신년특집 ① 2023년 대한민국에 바라는 국민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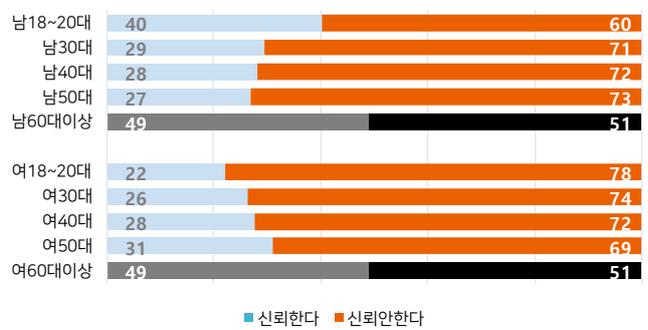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신뢰' 33%, 5%p 상승

-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월 대비 큰 폭(-5%p) 하락하며, 60%대를 기록함
 - 1월 조사 결과, 정부를 '신뢰한다' 33% vs '신뢰하지 않는다' 67%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4050세대 △여자 2040세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두드러짐
- '신뢰한다'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뿐인 가운데,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TK, PK △주부 △사회이익 중시층 등이었음
 - 남자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은 긍정·부정 응답이 팽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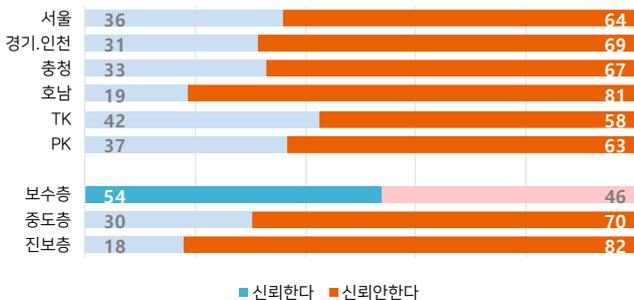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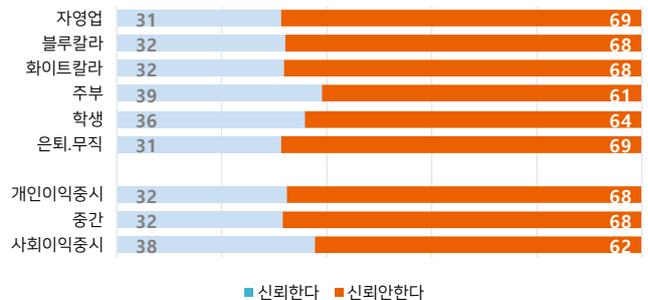
2023년 1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3년 1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2023년 1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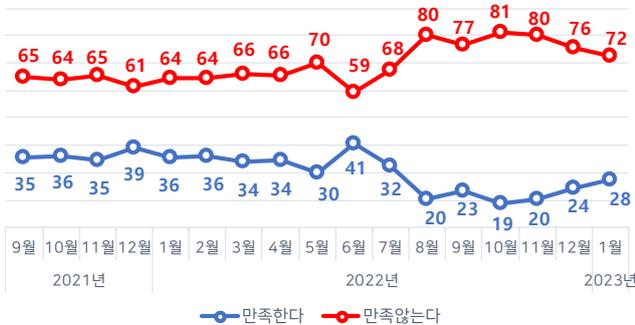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신뢰도가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하며, 30%선으로 올라섬
- ☑ 최근 정부가 결단력·추진력 있게 국정을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과 관련해 그간 가지고 있던 정부 능력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이 다소 낮아진 결과로 판단됨
 - : 지난 11월 이후 정부의 주요 행보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법·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비롯한 국정운영 방침 및 비전 제시 등이 있음
 - :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도는 작년 11월 3주(33%)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1월 2주에 41%를 기록함
 - : 11월 3주를 기점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의 주요 이유인 '결단력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증가하고, 부정평가의 주요 이유 '경험·능력 부족'은 감소함 (자료: NBS)
 - : ('결단력 있어서' 응답 추이) 22.11월 5주 29% → 12월 3주 42% → 12월 5주 33% → 1월 2주 43%
 - : ('경험·능력 부족' 응답 추이) 22.11월 5주 30% → 12월 3주 25% → 12월 5주 30% → 1월 2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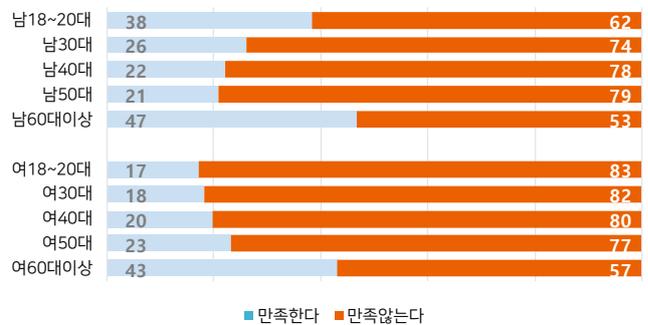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8%, 4%p 상승

-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3개월 연속 상승하며, 28%를 기록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4050세대 △여자 2050세대 △호남 △중도층, 진보층 등에서 두드러짐
-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TK △사회이익 중시층 등으로 나타남
 - 보수층은 긍정·부정 응답이 팽팽했음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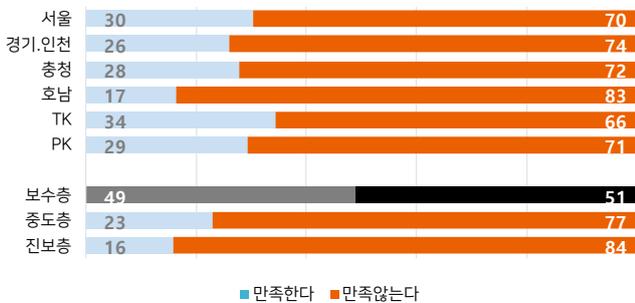


2023년 1월 정부정책 만족도: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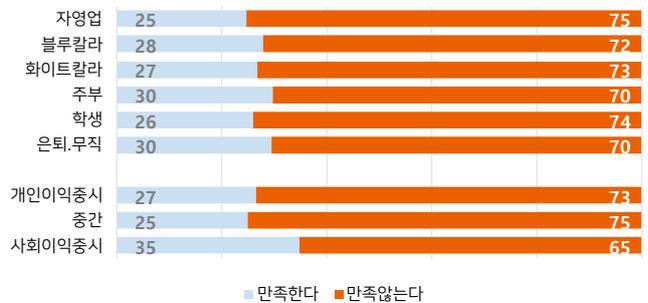
2023년 1월 정부정책 만족도: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2023년 1월 정부정책 만족도: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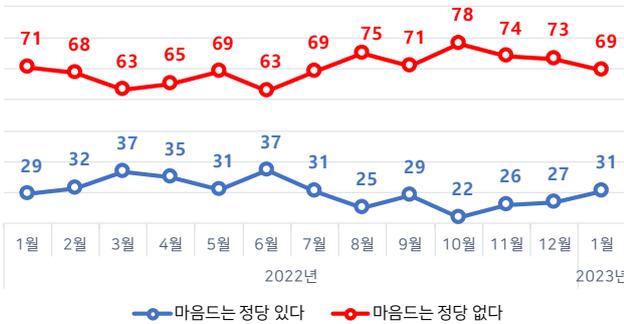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8월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선 내외에 머물렀던 정책 만족도가 지난달에 이어 4%p 상승하며 20%대 후반을 기록함
 - : 전월과 비교해 남자 30대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계층 전반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했음
- ☑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으로 대표되는 주요 정책 아젠다와 서울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 규제 해제 등 1·3 부동산 규제 완화책 등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3대 개혁 '교육', '노동', '연금' 개혁에 대한 긍정여론이 각 51%, 48%, 4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음
 - : 이 가운데 중도층의 각 개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대를 기록하며, 진보층을 큰 폭으로 상회했음
 - : (중도층과 진보층 순 긍정평가) '교육' 48% > 42%, '노동' 41% > 33%, '연금' 44% > 32%
 - : 1월 2주 기준, 현 정부의 경제 정책별 긍정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이 38%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소폭이지만 같은 기간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37%)보다도 높았음 (자료: NBS)
 - : 또한, 한국갤럽의 1월 2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서 긍정평가 이유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이 꼽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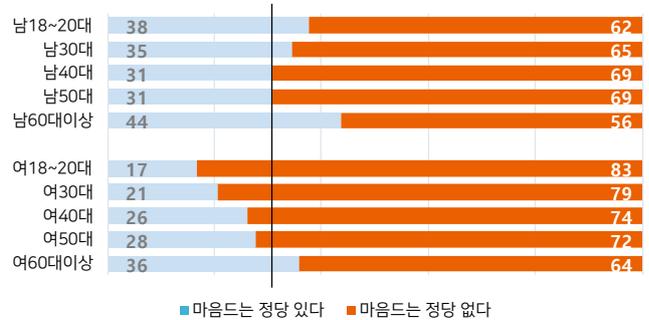
□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31%, 4%p 상승

- 정당 호감도 관련,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4%p 상승하며, 6개월 만에 30%선을 기록함
 - 1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31%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69%
-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40세대 △중도층 △학생, 은퇴·무직자 등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TK △보수층, 진보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사회이직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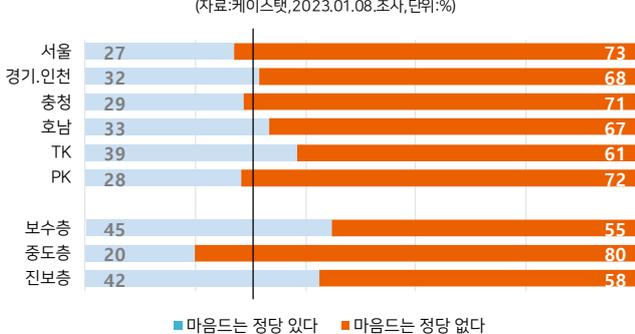
정당 호감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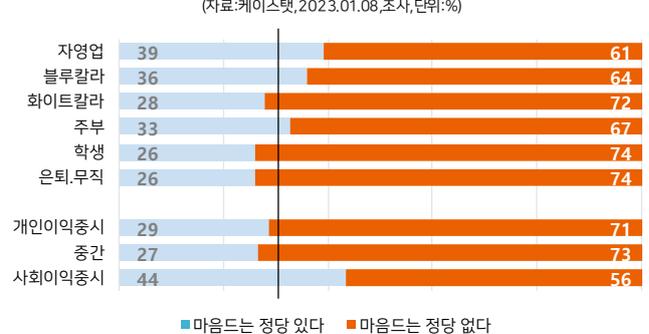
2023년 1월 정당 호감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3년 1월 정당 호감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2023년 1월 정당 호감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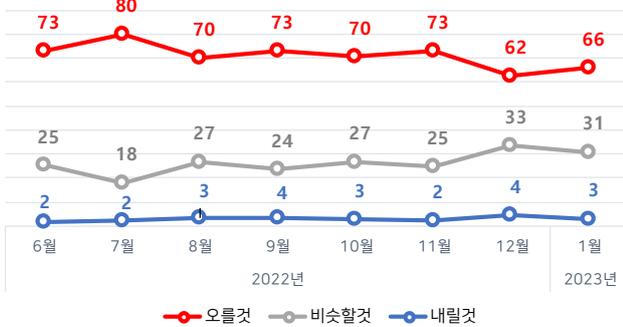
Kstat Point

- ☑ 이번 달 정당 호감도는 진보층보다 보수층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임
 -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보층보다 보수층의 정당 호감도가 높았던 작년 6·7월 이후로는 줄곧 진보층의 긍정여론이 더 높았는데, 6개월 만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남
- ☑ 작년 6월 이후 보수층과 진보층의 긍정여론 추이를 살펴보면, 보수층은 진보층보다 더 큰 증감 폭을 보였음
 - : (보수층) 22.6월 52%→7월 42%→8월 29%→9월 33%→10월 28%→11월 31%→12월 36%→23.1월 45%
 - : (진보층) 22.6월 42%→7월 36%→8월 41%→9월 38%→10월 40%→11월 41%→12월 39%→23.1월 42%
 - : 국민의힘은 이준석 리스크, 새 비대위원회 추진, 전당대회 등을 둘러싼 당 내홍과 갈등 해소 과정에 따라 여론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3·8 전대를 앞두고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불거져 다음 달 긍정여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 통보 등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개인과 당의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이후 여론의 향방은 어떠할지 귀추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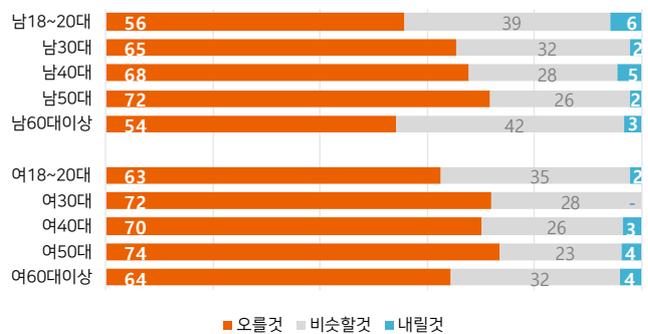
□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6%, 4%p 상승

- 다음 달 물가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은 상승하고, '비슷할 것',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은 하락하며 물가 상승 전망세가 증가함
 - 1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66%, '지금과 비슷할 것' 31%, '지금보다 떨어질 것' 3%
-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50대 △여자 30대, 50대 △호남 △진보층 △주부 등에서 높았음
- 한편,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여자 18~20대 △서울, TK △보수층 △자영업자,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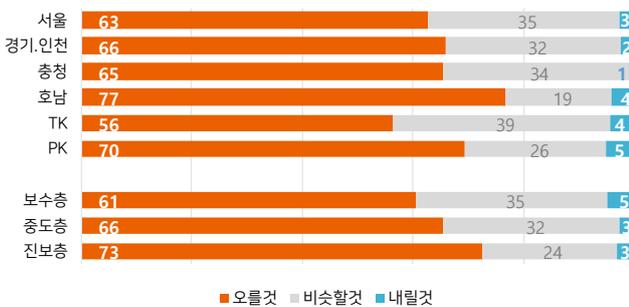
1월 '익월 물가 전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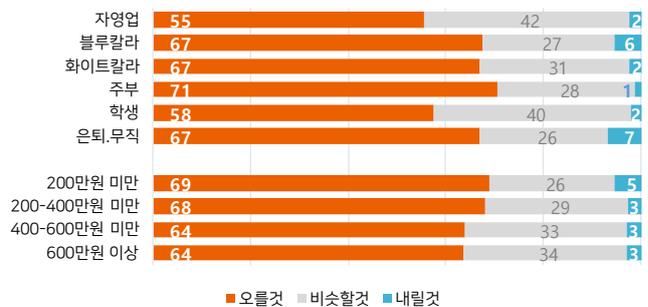
1월 '익월 물가 전망' : 성/연령별 (단위:%)



1월 '익월 물가 전망' : 지역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3.01.08.조사, 단위:%)



1월 '익월 물가 전망' : 직업별, 소득별 (자료:케이스탯, 2023.01.08.조사, 단위:%)



Kstat Point

- ☑ 지난달 물가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폭 증가하며 물가상승 전망세가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물가상승' 전망 여론이 다시 상승함
 -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5%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를 기록했으며, 지난 한 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5.1%)를 기록함
 -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소비자물가가 올 1~2월에도 5% 내외의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음
- ☑ 새해에도 소비자의 가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 전망 우위세가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된데다 2분기에 가스요금도 인상될 예정으로 공공요금발 국민의 물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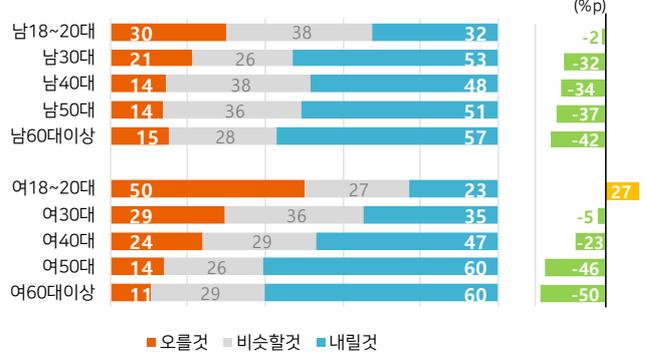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22%, 소폭 상승

- 부동산 가격 전망 관련, 작년 5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이 최근 2개월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1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내릴 것' 47%, '지금과 비슷할 것' 31%, '지금보다 오를 것' 22%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높은 가운데, 특히 △남자 3050세대, 60대 이상 △여자 50대 이상 △PK △진보층 등에서 뚜렷했음
-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한 계층은 △여자 18~20대 △국가 방향 긍정평가층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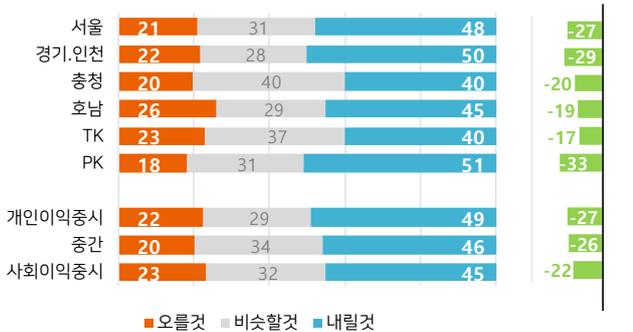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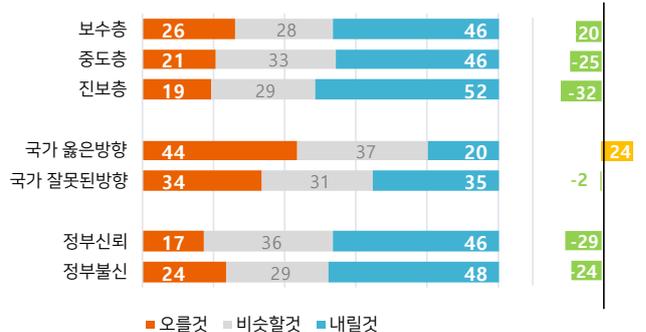
1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성/연령별 (단위:%)



1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지역별,이익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1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이념별 등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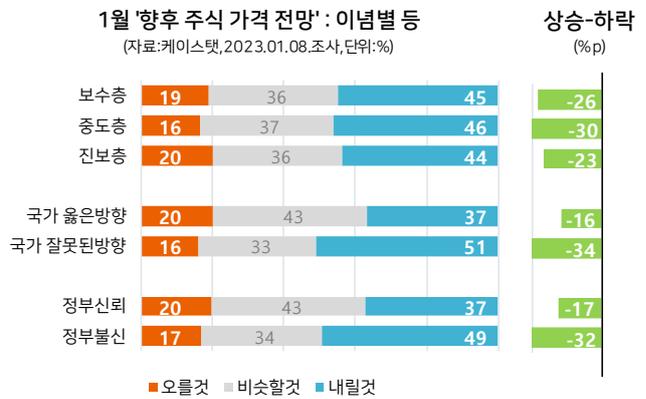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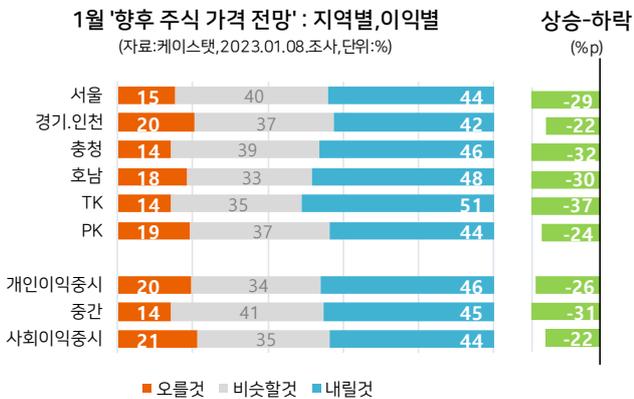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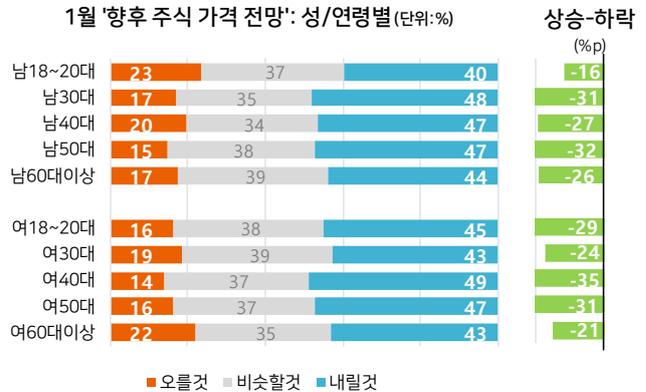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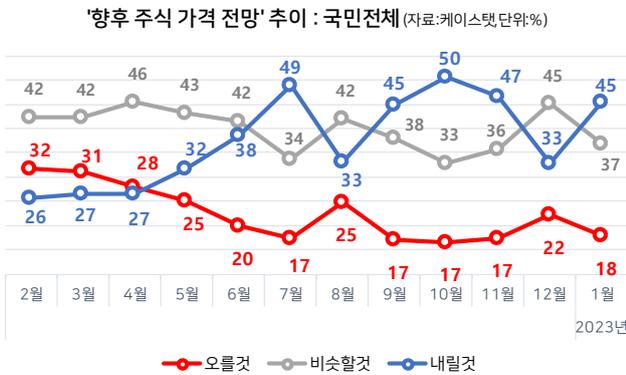


Kstat Point

- ☑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소폭 감소하며, 작년 5월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주춤했음
 - : 지난 3일 정부에서 발표한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 해제 등 전망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형성시킨 것으로 분석됨
 - : 12월 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2년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이래 가장 큰 낙폭(-0.76%)을 보인 후, 올 1월 1주(-0.65%), 2주(-0.52%) 연속 하락 폭이 축소했음
 - : 다만, 고금리 기조 지속·경기침체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단기에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45%, 12%p 상승

- 주식 가격이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이 대폭 상승한 가운데,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이 대폭 하락하고,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 또한 하락하며 주가 하락 전망세가 뚜렷했음
 - 1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내릴 것' 45%, '지금과 비슷할 것' 37%, '지금보다 오를 것' 18% 순으로 조사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는 전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가 하락 전망의 우위세가 뚜렷했으며, 주가 하락('차이'가 마이너스) 전망 응답은 특히 △남자 50대 △여자 40대 △충청, TK △국가방향 부정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에서 두드러짐
- 주가 상승을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60대 이상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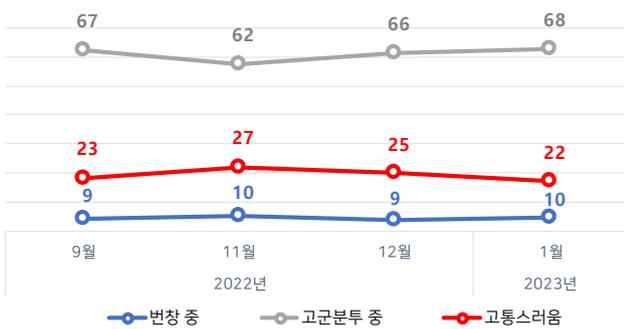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6월 이후 '주가 하락' 전망은 10%대의 큰 변동 폭으로 등락을 반복함
 - :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 속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임
- ☑ 여론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가 하락' 전망 추이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음
 - : 이는 주식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임
 - : 작년 마지막 거래일(22.12.29)에 코스피는 2236.4로 마감됐는데, 이는 직전년도 말 대비 24.9% 하락한 수치였음
 - : 코스피 시가총액은 1,767조원으로 마감해 직전년도 대비 436조원(19.8%)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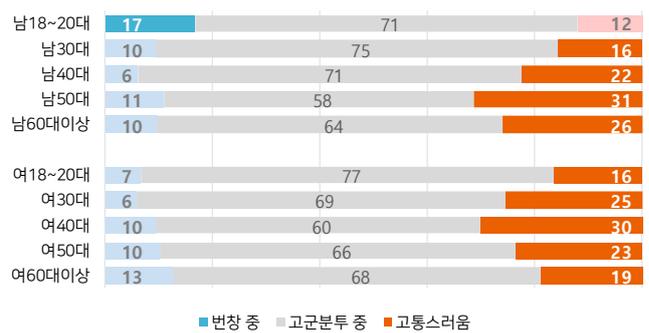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고군분투' 68%, '고통' 22%, '번창' 10%

- 우리 국민들의 '삶 평가 지수'를 유형화해 살펴본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고통스럽다' 응답이 전월 대비 3%p 하락함
 - 1월 조사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68%, '고통스럽다' 22%, '번창하고 있다' 10% 순으로 나타남
 - ※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최악' 0점 ~ '최고'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3가지로 유형화함
 - ①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미래 8점 이상 ②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3 외 전체 ③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미래 4점 이하
- '삶 평가 지수'의 유형별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통스럽다' 유형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대 △여자 40대 △PK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층 등임
- '번창하고 있다' 유형이 더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뿐이었음

한국민 '삶 평가 지수'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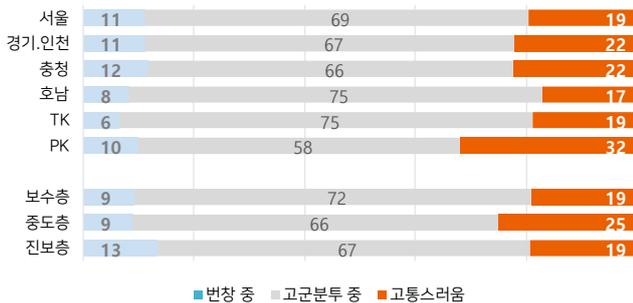


1월 '삶 평가 지수':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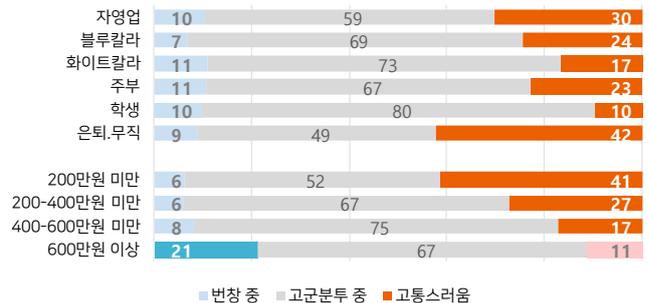
1월 '삶 평가 지수': 지역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 조사,단위:%)



1월 '삶 평가 지수': 직업별, 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Kstat Point

- ☑ 작년 11월 이후 2개월 연속 자기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부정 응답이 하락한 점이 눈에 띄
 - : 이는 여자 40대, PK, 은퇴·무직자 등을 제외한 계층 전반에서 '고통스럽다' 응답이 줄어들고, '고군분투 중' 또는 '번창 중' 응답이 늘어난 결과임
 - : 올해 경제 전망이 밝지 않지만, 국민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다짐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더 나아질 자기 삶과 미래를 생각하거나, 혹은 그러한 희망을 가지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임

1월 특별지표 : '자유'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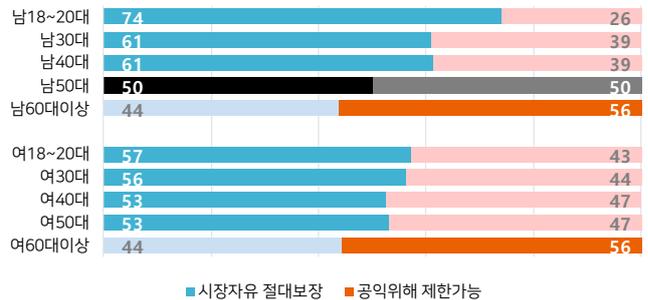
□ '시장자유 절대 보장' 55% vs '공익위해 제한 가능' 45%

- 전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설문 문항 : "선생님께서서는 시장의 자유에 관한 다음 주장 중 어느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국민 전체적으로 '시장자유 절대보장' 의견이 55%로 '공익위해 제한가능'(45%)보다 높았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시장자유 절대보장'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3040세대 △블루칼라 등임
- '공익위해 제한가능' 의견이 더 우세한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등이었음
 - 남자 50대, 호남, TK, 진보층,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등은 '시장자유 절대보장'과 '공익위해 제한가능' 의견이 팽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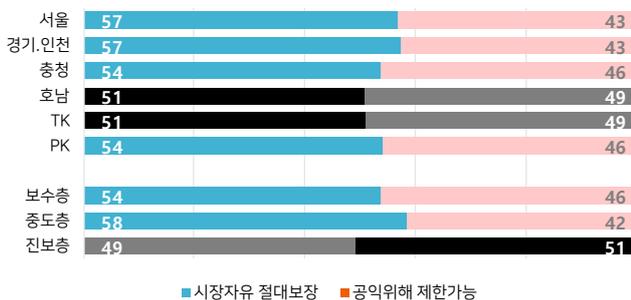
'시장자유'에 대한 태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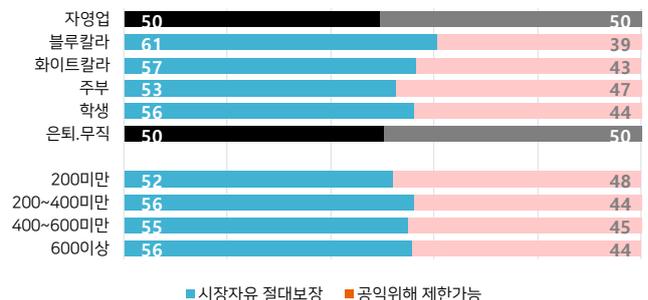
1월 '시장자유'에 대한 태도 : 성/연령별 (자료:2023.01.08.조사,단위:%)



1월 '시장자유'에 대한 태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1월 '시장자유'에 대한 태도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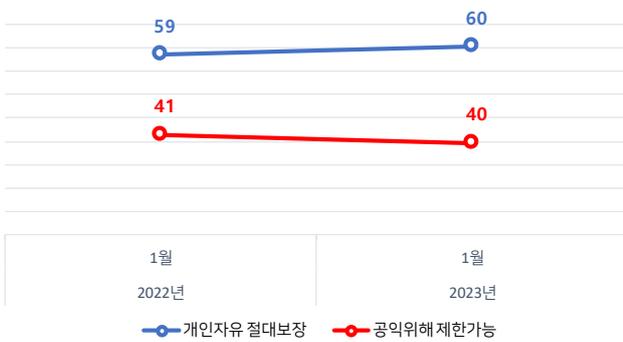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의 주관적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 시장 자유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명확히 갈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보수는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를 중시하고, 진보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및 역할을 중시함
- ☑ 바꾸어 말하면, 시장자유에 관한 국민의 관점으로 보수-진보 정치 이데올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 : 주관적 이념 성향 보수층의 '시장자유 절대보장' 응답과 진보층의 '공익위해 제한가능' 응답은 각각 절반을 조금 넘었고, 이는 60%에 가까운 '시장자유 절대보장' 의견을 보인 중도층보다도 낮은 수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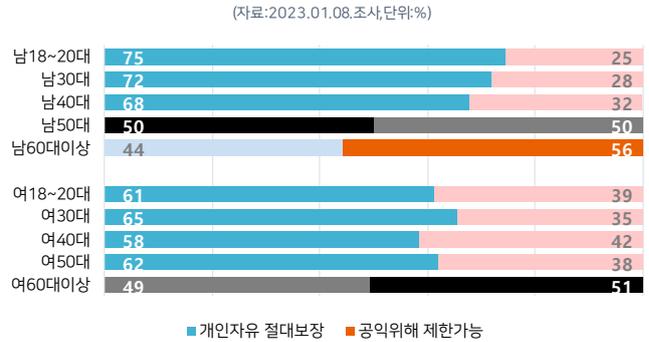
□ '개인자유 절대 보장' 60% vs '공익위해 제한 가능' 40%

- 개인자유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가 우세함
 - 설문 문항 : "선생님께서서는 개인의 자유에 관한 다음 주장 중 어느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국민 전체적으로 '개인자유 절대보장' 의견이 60%로 '공익위해 제한 가능'(40%)보다 높게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개인자유 절대보장'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40세대 △여자 30대 △블루칼라, 학생 등임
- '공익위해 제한 가능'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60 이상뿐이었음
 - 남자 50대와 여자 60대 이상은 '개인자유 절대보장'과 '공익위해 제한가능'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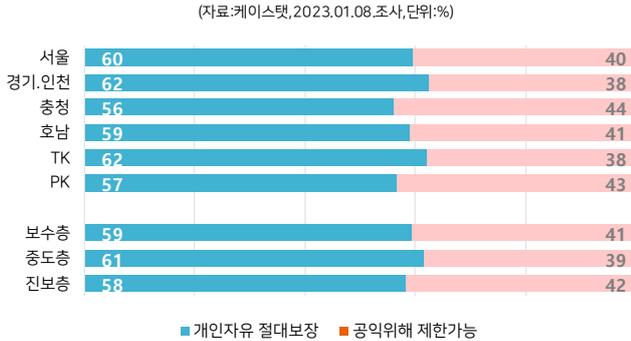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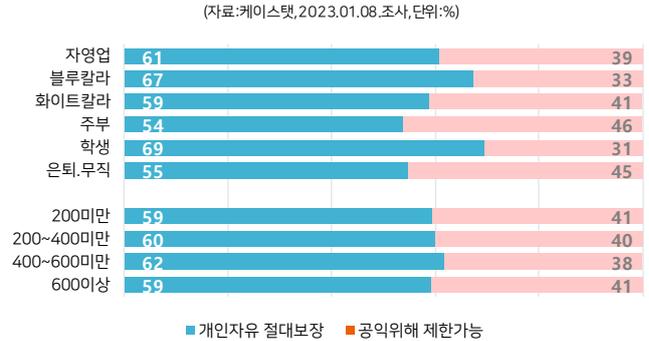
1월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 : 성/연령별 (자료:2023.01.08.조사,단위:%)



1월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1월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3.01.08.조사,단위:%)



Kstat Point

- ☑ 국민들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보다 개인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을 부정하는 태도가 더 컸음
 - : 작년 1월과 올해 1월 모두 '개인자유 절대보장' 응답이 '시장자유 절대보장' 응답을 웃돌고 있고, 올해는 그 격차가 더 커짐 (22.1월 2%p→ 23.1월 5%p)
 - : 또한, 이번 달 '개인자유 절대보장' 응답이 전 계층에서 '시장자유 절대보장' 응답보다 높았는데, 개인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다 뚜렷해진 모습이었음
- ☑ 개인의 도덕적·사회적 시각과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말하면, 전체 국민 약 60%는 사회 전체보다 개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개인 자율성과 자발성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
 - : 나머지 40%의 국민들은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집단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될 수 있다는 '집단주의(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지님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6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67호는 『국민 스스로 만든 2023년 토정비결』이라는 주제로 2023년 1월 26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